북구장애인복지회, 소외이웃 800세대에 떡국

(사)광주북구장애인복지회(이사장 최흥규) 주관으로 6일 장애인복지회 강당에서 열린 설맞이 사랑의 떡국 나누기 행사에서 서방라이온스클럽회원 등이 소외이웃 800세대에 전달될 떡국을 포장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한국폴리텍대학 광주캠퍼스 개교 15주년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박종구)이 개교 15주년을 맞았다. 지난 5일 한국폴리텍대학 광주캠퍼스(학장 이종태)는 개교 1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다. 〈한국폴리텍대학 제공〉

조선이공대, 광주 복지시설 3곳에 사랑의 쌀

조선이공대학교 김왕복(사진 가운데) 총장과 교직원들은 설을 맞아 광주 무등학원 등 3개 복지시설을 방문해 교직원들이 모금한 성금으로 구입한 쌀을 전달했다. 〈조선이공대 제공〉

고흥녹동농협, 조합원 자녀 장학금 3330만원

고흥녹동농협(조합장 양수원)은 최근 청사 대회의실에서 조합원 자녀 등 94명에게 장학금 3330만원을 전달했다. /고흥=주각중기자 gjju@kwangju.co.kr

"동물은 지친 마음 치유하는 친구입니다"

동물과 함께 반평생 광주동물보호소 수의사 박용수 씨

"우리는 동물을 보호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많은 것을 받아요. 가축은 고기를,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 동물은 마음을 치료해주는 인간의 동반자죠. 동물은 사람을 배신하지 않아요. 마음을 줄수록,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될 겁니다."

반 평생을 동물과 함께 해온 광주동물보호소 박용수(49)씨는 동물이 좋아 수의사가 됐다. 어릴 적 아버지를 도와 젖소를 키우며 풀을 먹이고, 축사를 치료하고 젖을 짜던 시절이 아직 생생하다. 순수한 마음에 젖소가 병에 걸려 아파할 때면, 자기가 더 아픔을 느끼곤 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서 인턴 생활을 한 후 1993년, 마침내 그는 고향인 광주에 자신이 운영하는 동물병원을 열었다. 하지만 막상 마주친 수의사의 세계는 생각과는 많이 달랐다. 돈 문제도, 적성에 맞지 않아서도 아니었다.

"열정이 지나쳤던 게 화근이었죠. 동물을 편안하게 쉬게 해주는 것도 수의사의 임무 중 하나인데, 저는 동물이 아파하면 무조건 치료를 해야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90년대 초만 해도 개나 고양이 같은 동물은 취미 생활중 하나일 뿐이었다. 그는 "'애완동물'이 '반려동물'로 바뀐 지는 몇 년 되지 않잖아요"라며 씁쓸해 했다. 자신이 키우는 동물인데도 치료비를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보호자가 많았다. 다툼이 잦아졌다. 소문이 나빠져 광주에서만 3~4번 병원의 위치를 옮겨야 했다. 스트레스 때문에 결국 광주를 떠난 그는 서울로 올라가 한 동물병원의 진료 수의사로 근무했다.

그러던 중 작년에 광주동물보호소에서 연락이 왔다. 수의사 자리가 비어 동물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대우와 급여가 낮았지만 그는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광주동물보호소는 생긴지 얼마 되지 않아 수의사가 없을 때 한번 씩 방문해 진료와 수술을 해줬던 인연이 있었다. 그렇게 그는 작년 8월부터 보호소의 유일한 수의사가 됐다.

"지금 보호소에는 110여 마리의 개와 30여 마리의 고양이가 있어요. 겨울이라 한가한 편이죠. 하루 평균 10마리가 들어오고, 50% 정도가 분양돼서 떠나요. 그 많은 수를 TNR(트랩(잡고) 뉴터(중성화시키고) 리턴(돌려보낸다)) 은 물론 수술과 진료까지 혼자 하면 하루하루 정신이 없어요"

하지만 자신이 돌봐준 반려동물이 주인을 찾거나, 좋은 곳으로 분양되어 떠나는 모습을 보면 그런 피로는 씻은 듯 사라진다. 반려동물을 한 가족처럼 생각하고 아껴주는 사람을 볼 때마다 수의사로서 자신의 마음을 다잡기도 한단다.

그는 "반려동물등록제가 활성화돼 언젠가 동물보호소가 없어지는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며 웃음 지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나로호 발사 성공 감회가 새롭네요"

14년전 우주센터 고흥 유치 숨은 주역 이병훈 亞문화경제연구원장

"지난달 30일 오후 비록 TV 속이었지만 나로호 발사 순간을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새벽까지 '성공'이라는 자막을 기다리며 14년 전 우주센터 유치 과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병훈 아시아문화경제연구원장(57·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단장)은 우리나라 최초 우주발사체의 이름이 된 나로도에 우주센터 및 발사장이 들어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대표적인 인사다. 정부가 우주센터 건립에 나선 것은 1999년 3월. 당시 과학기술부는 선진국의 필수 조건이기도 했던 우주개발을 서두르면서 경남 통영·사천·고성·거제·남해·제주 등을 유력한 후보지로 보고 있었다.

"그 해 제가 문화환경국장으로 있었는데, 후배들을 통해 정부 방침을 조금 일찍 눈치를 챘습니다. 우연한 기회였는데, 그 때까지만 해도 전남지역은 아예 고려대상이 아니었어요."

이 연구원장은 부하 직원을 시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접촉하도록 하고 센터 입지 조건을 파악하는데 전력을 기울였다. 이미 경남 및 제주의 지자체들의 유치 활동이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던 시점이었다.

"일단 당시 허경만 지사에게 우주센터가 관광명소는 물론 한국우주산업의 메카가 될 것이라고 보고한 뒤 1999년 4월 서둘러 기자회견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고흥과 완도를 후보지로 과학기술부에 제출했죠."

이에 앞서 '우주센터 건설' 지역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고흥과 완도 주민들을 이해시켰고, 향후 현지답사나 부지매입 등 행정적 지원에 나서야할 지자체에 정보를 공유했다. 그가 중심이 돼 작성한 '우주센터가 왜 전남에 있어야하는가'라는 제목의 글은 지금까지 이야기될 정도로 '명문'이다.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갈등 양상을 빚을 수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정공법을 선택하기로 마음먹었죠. 지정학적 위치·기존 도로·지형지물 상태·좌표, 연간 강우량·풍향 풍속·온도분포, 발사장 암반상태, 비행장 존재 여부 등 주제별로 전라도와 경상남도, 제주도를 일목요연하게 비교정리해 우수성을 입증했습니다."

결국 이 같은 노력 끝에 과학기술부는 최종 결선에 오른 후보지 경남 남해와 전남 고흥 가운데 고흥의 손을 들어줬다.

오는 2020년에는 고흥 외나로도에서 한국형 발사체가 발사될 예정이다. 이 연구원장은 "어렵게 얻은 자랑스런 우주센터가 전남은 물론 우리나라 그리고 세계 속에 빛나는 우주메카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윤현석기자 chadol@

유노윤호 해외팬들, 광주에 쌀 12t 기부

동방신기의 유노윤호(본명 정윤호)의 13개국 팬들이 유노윤호의 생일을 맞아 그의 고향인 광주에 쌀을 기부했다.

6일 광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유노윤호의 각국 팬들이 모은 쌀 12.62t(3155만 원 상당)을 광주 사랑의 열매에 기부했다.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러시아, 페루, 스페인, 쿠웨이트, 홍콩,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등 13개국이 넘는 해외 팬들은 SBS '야왕' 제작발표회에 쌀 화환을 보냈고 이 중 12.62t을 유노윤호의 생일을 축하하며 광주 사랑의 열매에 보냈다.

기부된 쌀은 지역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자 등 1161명의 가정에 10kg씩 전달됐으며 나머지도 소외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유노윤호의 세계 각국 팬 사이트 연합 'WISH'는 지난 2010년 9월 뮤지컬 '궁' 공연에 쌀 화환 3.83t을 보내 광주 복지시설 및 새날 학교에 지원했다. /연합뉴스

영랑 시인, 93년만에 휘문고 졸업

휘문의숙, 명예졸업장 추서

한국 현대시의 거성 영랑 김윤식(1903~1950) 선생이 93년 만에 휘문고 졸업장을 받았다.

학교법인 휘문의숙(이사장 민인기)은 1919년 3월 1일 기미독립운동에 연루돼 옥고를 치르는 과정에서 졸업 기회를 잃은 김영랑 시인에게 6일 치러진 2012학년도 휘문고 졸업식에서 명예졸업장을 추서했다.

이날 영랑의 졸업장은 선생의 막내딸인 김애란(65·서울시)씨가 받았다.

이번 명예졸업장 추서는 학교법인 휘문의숙과 총동문회, 강진군이 수차례 협의해 공감대를 형성한 결과다.

이에 앞서 총동문회는 지난달 21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개최한 2013년 신년하례식에서 작고한 동문으로선 처음으로 김영랑 시인에게 '자랑스러운 휘문인 상'을 줬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김영랑 선생의 휘문의숙 명예졸업장 추서는 선생의 애국사상과 문학사적 위상을 국민에게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현창사업을 벌여 영랑 선생의 문학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국 현대시의 거성 영랑 김윤식(1903~1950) 선생이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휘문고 졸업식에서 학교법인 휘문의숙으로부터 94년 만에 졸업장을 추서 받았다. 사진은 선생의 막내딸 김애란 씨(가운데)가 반의환 교장(왼쪽)에게 명예졸업장을 전해 받은 후 기념촬영 하는 모습. /연합뉴스

석해균 선장 제2의 인생…방통대 입학

'아덴만의 영웅' 석해균(60) 전 삼호주얼리호 선장이 한국방송통신대에 입학한다.

석 전 선장은 최근 이 대학 청소년교육과에 지원해 합격했다.

석 전 선장은 6일 "죽을 고비에서 살아 돌아온 제2의 인생을 교육자로서 봉사하며 살고 싶어 대학에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요즘 청소년들은 입시 문제에 시달려서 그런지 정신이나 체력적으로 약한 것 같다"며 "학교에서 전문적으로 공부해 이들에게 힘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석 전 선장은 1970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해군에 입대, 5년4개월의 군 복무를 마치고 하사로 전역했다.

항해 중에도 1급 항해사 자격증을 따는 등 공부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았지만, 평생을 바다에서 지내 대학에 진학할 수 없었다. /연합뉴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84 FAX 062-222-4938, 222-4918

종친회

▲전주리씨 광주·전남 지원 이화회 2월 월례회의가 (회장 이승봉)=12일(화) 오후 6시 도지원 회의실3층 062-225-5636, 5631.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대한노인회 광주 취업지원센터 일자리 안내=광주시에 거주하는 심신 건강한 60세 이상 노인(주민등록증 지참) 동구센터 062-223-8324, 서구센터 062-431-4529, 남구센터 062-432-0947, 북구센터 062-433-6050, 광산구센터 062-942-0204.

▲광주 여성의 전화 무료 상담 및 법률·의료비 지원=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직장내 성차별, 이주여성 문제. 상담 062-363-0442~3.

▲광주종합사회복지관 아동가족상담센터 무료상담=아동심리적 발달·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미술치료, 언어치료, 자녀양육상담 062-264-4370, 5308.

▲오치종합사회복지관 이주여성 한국사회 적응력 향상 무료 교육=요가, 웃음교육, 푸드아트테라피, 매주 월·수요일 오전, 선착순 20명. 062-267-3700.

▲자비선원 명상 무료 지도=학생, 주부, 직장인, 마음의 평화를 원하시는 분 062-228-7701.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장애차별 상담=국번 없이 1331, 우편방문-광주시 동구 제봉로 광주은행 본점 6층.

▲한국실버복지회 생활법률 무료 상담=내용증명, 고소장, 호적정리, 가정 고민, 실버 결혼, 이발, 주례 서주기, 묘자리 봐주기 등(실버에 한함) 062-365-8228.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무료 상담=보호가 필요한 아동 일시보호 상담. 국내 입양 상담. 미혼모 상담 및 시설 입소 안내 062-222-1095.

▲비둘기 가정상담소 무료 상담=인터넷 및 전화 상담. 방문 상담은 예약제. 062-652-1366, 062-434-1366 www.gene-korea.com

▲장애아동통합교육보조원사업단=저소득층 주민에게 특수교육실무사의 기술 교육 및 공동체 교육을 통해 양질의 전문 인력을 배출하여 경제적인 자립 기회 제공, 광주 서구지역 초·중·고등학생의 장애우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 적절한 교육 및 학습환경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장애우 및 장애아동의 삶의 질 향상 기여.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2-3029.

모집

▲광주노인지도자대학 제27기생=심신이 건강하고 수업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 남여(선착순 60명), 모집기간은 28일(목)까지, 수업시간은 매주 수요일(2시간) 062-652-7374.

▲한국노후생애대안학교 6기 학생=교육과정은 노후생애설계, 생활영어(여행영어), 한시(한문), 웃음(건강)치료, 노인상담심리학. 원서접수는 15일(금) 오후 5시까지 062-223-1357, 010-2646-5023.

▲2013 취업아카데미 연수생=광주·전남 대학교 졸업(예정)자 대상, 매주 토요일 취업역량강화교육 진행, 지역산업실무, 금융영업실무, 생산관리품질경영, 영업마케팅과정의 전문교육실시. 모집기간 6일(수)까지(사)인재육성아카데미(www.gjmyjob.com) 062-224-7733, 1.

▲자원봉사 캠프지기=장소는 지산2동·학운동·지원1동주민자치센터, 시간은 주 1회 오후 1시~5시. 동구자원봉사센터 062-228-1365, 062-608-2425.

▲전문봉사단 교육 수강생=모집분야는 수지침·동화구연, 교육일정은 3월부터 주 1회. 동구자원봉사센터 062-228-1365, 062-608-2425.

▲경로당 문화활동 전문 강사=모집대상은 건강증진·여가프로그램 진행가능자, 활동 장소는 동구 관내 경로당. 동구자원봉사센터 062-228-1365, 062-608-2425.

▲등하교 도우미=모집대상은 동구 관내 초등학교 인근 거주 여성. 동구자원봉사센터 062-228-1365, 062-608-2425.

▲광주대 풍수지리학 무료 강좌=23일(토) 오후 2시~5시 광주대 도서관 5층. 양택, 음택·수맥, 나경·입향론, 비결록명당, 장법요강 등 진정한 이론과 현상 영상 강의(책자무료제공) 010-3609-8117, 062-670-2161, 2135.

▲설현차문화연구원=녹차, 중국차, 홍차 등 초·중·고급반 수강생 모집 062-432-0070, 010-2602-0070.

▲KT&G 건강브랜드 이체 사원=동인비 홍삼 화장품 출시 기념 강사 수시모집, 홍삼화장품 세계최초 출시·한국인삼공사·홍삼 기능식품 판매 사원(재택크 가능) 062-511-9861, 011-9666-3555.

▲제주 소암 필법수강생=초대작가 이관주. 문응주 정형외과 4층 010-2982-5124.

▲퀸즈공예전문학원=각종 도자기, 컵, 접시, 공기그릇, 대접, 핸드페인팅, 포셀린페인팅, 세라믹페인팅, 포크아트. 체험학습, 취미반, 창업반, 전문가 과정 수시모집. 062-251-5559, 010-2665-6440.

▲꿈을 돕는 사람들(광주학당)=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기초반, 한문, 컴퓨터 등 수시모집(무료강의), 서방시장안쪽 관리사무소옆 062-512-5788, 062-262-1542.

▲축구회원=추구를 통해서 친목도 도모하고 활기찬 여가운동을 하고자하는 20~50대 축구회원을 모집, 매주 토요일 오후 운암동 인조구장 010-9604-1681(신찬수).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故김광엽 (여/93세)
子/子婦: 황성출/김진숙, 성은/이명애, 성규
女/壻 : 황덕남, 옥순, 영자/강종남, 대례, 소례/박종성
• 호실:201호 • 발인:2월 8일
• 장지:영락공원 • 연락처:227-4381

故이남병 (남/74세)
子/子婦 : 이기곤/고 희기무/김옥빈,기철
女/壻 :이희자/최충만
• 호실:402호 • 발인:2월 8일
• 장지:영락공원 • 연락처:227-4314

故심현지 (여/64세)
子/子婦 :박재우/홍수미, 재석
壻夫 : 임석주
• 호실:101호 • 발인:2월 8일
• 장지:영락공원 • 연락처:227-4385

故임선자 (여/52세)
子 : 김강철 女 : 김선희
未壻夫 : 김정삼
• 호실:102호 • 발인:2월 8일
• 장지:영락공원 • 연락처:227-4386

마음까지 편안한
孝 금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